

라고스 칠레 대통령 내외 주최 오찬답사

존경하는 라고스 대통령 각하 내외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각하 내외분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칠레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칠레는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을 만큼 모범적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로 그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나는 중남미에서 '비즈니스 환경 1위' 라는 산티아고를 보면서 칠레의 역동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각하께서 취임한 이후 칠레는 국민적 화합 속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치·사회개혁, 빈곤극복 등 각하의 여러 정책들이 가져온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각하께서 목표로 하는 '선진 칠레 건설' 이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며, 칠레 국민의 저력과 각하의 지도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 각하,

칠레는 중남미 국가로는 가장 먼저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고, 6·25전쟁 때도

적극 도와 주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매년 양국 정상회담이 열릴 정도로 가까운 우방입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올 4월 발효 이후 교역량이 70% 이상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문화 등 여러 분야 교류·협력도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칠레 포도주는 인기가 높습니다. 탄생 100주년을 맞은 위대한 시인 파블로 네루다에 대한 관심도 매우 큼니다.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양국간 상호 포괄적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귀빈 여러분,

칠레는 다시 오고 싶은 나라입니다. 그때는 장엄한 호수와 화산이 장관을 이룬다는 남부지역과 유명한 '모아이 석상'도 꼭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 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칠레의 번영, 그리고 양국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서 건배를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